

목어

서돌지 말자



누구든지 한국문화를 '빨리빨리' 문화라고 한다면 비단 한국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한동안 한국 사회는 초고속 실적달성을 자화자찬하며 무슨 큰 장점이라도 되는 양 내세우기까지 했다. 그러나 성장의 그림자가 짙어만 가는 요즘에는, 급히 서둘러서 얻은 대가를 북돋아 치르고 있다. 애써 기억을 되살리지 않아도 아픈 기억은 너무나 많다.

그 동안 '한강의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한국은 비약적이고 급속한 개발·건설·발전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한강다리 가운데 가장 튼튼한 다리, 안심하고 건널 수 있는 다리가 과연 어떤 다리일까? '성수대교' 붕괴 후 한강다리를 건너며 가슴을 쓸어내리는 사람은 한 둘이 아닐 것이다.

와우아파트의 붕괴, 삼풍백화점의 참변, 가스 폭발 사건 등 급히 서두른 결과가 가져온 상처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업으로 남아 있다. 뿐만 아니라 내 조급함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는가 하면 남의 부주의로 내가 불구가 되고, 또 서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다투다 사고가 나서 당하는 불행은 일상화되다시피 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먼저, 내가 한 발이라도 더 먼저 가겠다는 빨리빨리에서 오는 조급증과 통제불능의 이기심 때문이다.

그런데 더 신기(기)한 것은 조급증으로 인해 입은 상처조차도 서둘러 잊어버린다는 것이다. 일만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짓는 것조차 서두르다 보니 제대로 반성할 기회마저 잃고 만다.

한민족이 본래 가지고 있는 치밀하고 정교한 문화전통을 살리고, 빨리 나오는 햄버거가 아니라 천천히 끓여서 먹는 된장찌개의 맛을 우리 생활 윤리에 접목시켜 기다림의 미덕과 도덕을 빨리 회복시켜야만 즐겁고 아름다운 공동체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제발 서돌지 말자. 그래야만 사회문화가 안정을 되찾을 것이고, 세계시장에서의 신인도도 배가 될 것이다.

법산(동국대 정각원장)

“친환경적 문화 숨쉬는 청사 짓는다”

조계종이 13일 불교역사문화기념관 건립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98년 중단상태로 중단됐던 청사건립 불사가 본격화됐다.

많은 불자들은 현재의 청사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수차례의 중단사태의 기억을 떠올리며 조계종의 화합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물론 한국 불교의 얼굴이라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 중수도시설의 설치, 자연광의 활용, 초저에너지 기술 및 유지 등 친환경적 건축의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불교역사문화기념관은 지하 3층, 지상 5층의 건물로 현재의 총무원 청사 뒤편에 들어선다. 연면적은 14,876㎡(4500평)으로 현 총무원 청사(800평)보다 5배 이상 넓다. 지하 2-3층은 주차장과 기계실, 수조, 지하 1층은 문화재 연구실과 문화재 수장고가 들어선다. 지상 1층은 다목적홀(국제회의장, 공연장과 단체 사무실, 지상 2층은 기획전시실, 한국불교역사실, 성보문화재실, 중앙불교전시실, 지상 3층에는 한국 불교문화정보센터, 불교자료실, 불교문화체험실로 꾸며진다. 4-5층은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호계원 등 중앙종무기관의 업무공간으로 쓰인다.

10월 착공하면 현 교육원 건물이 헐린다. 총무원 건물은 그대로 두되 기념관 완공 후 철거된다.

총사업비 640억원이 들어간다. 건축비는 380억원이지만, 인근 민가 구입비가 만만치 않다. 부지 매입에 이미 260억원이 들어갔고, 적립된 30억원의 시설특별회계가 있

불교역사문화기념관 ‘밀그림’

사업비 640억 투입...내년 11월 완공 조계종 “불자 십시일반 동참 기대”

으므로 앞으로 마련해야 할 돈은 350억원이다. 집행위원회는 교구본사의 어려움을 감안해 될 수 있는 한 교구본사에는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불자들의 십시일반 동참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건립 불사는 이달 말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원만성취 기원대법회를 시작으로 △7월중 추진위 사무실 입주 및 전담실무인력 배치, 기본설계

검토 및 승인 △8월 문화재 심의 접수 및 시공사 선정 준비 △9월 실시 설계 승인 및 건축허가 접수 △10월 시공사 선정 및 착공 △2002년 11월 준공의 시간표에 따라 진행된다.

지난 7일 일건건축사 사무소와 설계·감리 계약을 체결, 이미 기본설계에 들어갔다.

시공사 선정은 지명공개경쟁입찰 방식을 예정하고 있으며, 가급적이면 공사수주 순위 10위 내에 든

업체에 한정한다는 방침이다.

기념관이 완공되면 조계사 대웅전-기념관 사이 폭 20m의 공간은 녹지로 조성된다. 우정국공원과 전통불교문화 공간으로서의 조계사 그리고 불교역사문화기념관이 어우러져 서울의 새로운 명소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념관은 한국의 불교를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 돼 포교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 총무원 청사는 75년 당시 고산 총무원장 재임 때 완공됐다. 98, 99년 중단사태 때는 분규의 상징으로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으며, 화재가 발생해 불에 그슬리기도 한 상처를 안고 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a.com



△불교역사문화기념관이 들어설 현 교육원 건물과 그 주변, 내년 11월 완공되는 불교역사문화기념관은 현 총무원보다 5배 이상 넓은 공간에 불교역사와 문화를 아우르는 불교종합문화관이 될 전망이다.

문화재 관람료 승소이후

사찰 재정구조 변화 ‘숙제’

12일 서울지법 민사8단독 재판부의 판결로 문화재관람료 반환소송의 피고가 됐던 현은사와 신홍사가 모두 1심에서 승소했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소송을 제기했던 참여연대에서 현은사를 상대로 해서는 이미 항소를 했고, 신홍사에 대해서도 항소할 방침임을 밝혀 법적으로는 여전히 미제로 남았다. 참여연대는 1심 패소 후에도 소장에서 밝힌 문화재 관람 의사가 없는데도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함께 받는 것은 부당하며, 따라서 사찰로 들어가는 문화재 관람료는 부당이득금이라는 주장을 계속 펴고 있다. 조계종에서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징수하

“부당이득금이다” 참여연대 항소

“국민 정신휴양처” 조계종 대국민 홍보

는 것이며, 사찰 경내를 지나며 경내의 거의 전부가 문화재인 사찰을 관람하지 않는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며 반박하고 있다. 특히 조계종은 국립공원에 편입돼 국민들의 정신적인 휴양처를 제공했음에도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중단으로 보는 것에 대해 매우 불쾌해 하고 있다.

조계종이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립공원 제도와 문화재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과 대안 마련을 통해 동

합 징수에 따른 민원을 해소해자는 것이다.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10여개 환경·시민 단체로 구성된 ‘국립공원 제도개선 시민위원회’의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시민위원회에서 새로운 대안을 만든다 해도 정부와 협의할 해야 하므로 적지 않은 시일이 필요하다. 똑같은 유형의 민원에 대해 가급적 빨리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까도 고민거리로 삼아야 한다.

사찰 재정구조의 근본적인 변화, 관람료 사찰의 서비스 향상 등 조계종이 안은 과제인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미룰 수 없는 과제인 것만은 분명하다. 정성운 기자

가산불교문화연구원 10년

불교학 대중화 ‘한몫’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스님)이 16일 개원 10주년을 맞았다.

지관스님의 원력으로 지난 1991년 6월 16일 서울 해회동 대학로 한 복판에 문을 연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은 ‘불교전통의 창의적 수용을 통해 인간의 본래 불성과 근본 법성을 발현시킨다’는 연구 이념을 바탕으로 지난 10년간 불교학의 대중화와 보편화를 앞당기는데 큰 역할을 해 왔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은 1700년 한국불교의 역사와 정신, 문화를 오늘에 되살리기 위해 한국불교대백과사전 편찬, 학술, 교육, 출판, 교회의 5대 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미래의 한국불교를 이끌어 갈 인재양성에도 매진해 왔다.

특히 1996년 문을 연 가산불교문화연구원 부설 불교원전전문학림 삼학원은 불교 교유의 이수방법인 논강 및 전강의 전법 전통을 오늘에 이어, 근본 경전 및 논서 등의 연찬을 통한 교학의 체계적 전수와 진보적 불교학의 연구결과를 두루 섭수하는 전문연구와 인재양성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96년 제1기 입학이후 현재 본과 40여명, 연구과정 50여명이 정진 중에 있으며, 오는 8월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하게 된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은 지난 10년간 <교역주역대고승비문총서> <한국불교소의경전연구> <한

교육·출판 등 5대사업 전개 삼학원 논강·전강 전통 계승

국불교사상사> <가산학보> 등 40여종의 교학서와 자료집을 발간해 한국불교의 사상을 체계화하는데도 큰 역할을 했다. 지난 99년 첫 권을 발간한 이후 오는 7월 제4권을 출간하는 불교대백과사전 <가산불교대사전> 편찬사업은 기존 사전의 범주를 넘어 다양한 불교술어를 수록해 불교문화와 사상 전반에 대한 보편적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개원 이후 10년간 ‘세계승가공동체의 교학체제와 수행체제’ ‘해초스님 기념 세미나’를 비롯해 ‘일본화엄학연구소와의 교류’, ‘독일 해결학회 심포지움 개최’ 등 다양한 세미나와 심포지움을 통해 한국불교의 전승가치와 삼학(三學)의 사회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성과들을 이끌어 냈다.

개원 10주년을 기점으로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은 향후 10년간 수행과 연구를 표방한 ‘가산 포럼’을 통해 우리 사회의 수행 가치를 보편화시키고, 이를 대중화 하는데 앞장 설 계획이다.

또한 삼장을 통한 삼학 연구의 선도작업으로 산스크리트어, 팔리어, 티베트어, 한문 등으로 된 삼장 기본서의 교역주작업, 가산삼학총서의 발행 등도 전개하게 된다. 이 가산삼학총서 시리즈 가운데 수행논서 제1권 <빠띠삼미다박가>가 7월 초 출간될 예정인데, <빠띠삼미다박가>의 출간을 필두로 지난 1천년간 유행했던 수행논서들을 차례로 번역 정리해 발간해, 대중수행의 올바른 길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은자 기자 ejeen@buddhapa.com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김광삼
인쇄인: 김규석
인터넷/일간지/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부디피아: www.buddhapa.com
불교소셜/마하말: www.mahamali.co.kr
온라인서점/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원만성취 기원 대법회
대한불교조계종은 불자들 및 일반 국민,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민족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체험의 공간을 제공하며, 한국불교 총본산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한국불교 역사문화 기념관’을 건립합니다.
이에 원로대덕스님들과 중진 스님들, 그리고 신도 여러분 등 모든 조계종도들이 ‘한국불교 역사문화 기념관’ 건립의 의의를 함께 나누고 건립을 향한 원력을 굳건히 세우기 위하여 ‘한국불교 역사문화 기념관 원만성취 기원 대법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여러 스님과 신도께서는 무부 동참하시어 종단의 위의를 세우고, 미래를 열 ‘한국불교 역사문화 기념관’ 건립이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일시: 불기 2545년(서기 2001년) 6월 26일(화) 2시
장소: 조계사 대웅전
한국불교역사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정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정대